

제15대 중앙종회

11월 9일 개원

14일간 제185회 정기총회

제15대 중앙종회가 오는 9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에서 발행하는 <불교신문> 11월3일자에 제15대 중앙종회 개원식 및 제185회 정기중앙종회 집회 공고를 냈다. 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는 총무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제15대 중앙종회 개원식은 11월9일 오전10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이어 제185회 정기 중앙종회는 9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제185회 종회에서는 임기 2년의 의장단(의장, 부의장)과 상임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또한 각 상임분과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종회에서는 불기 2555년(2011년) 예산안을 다루게 된다. 제15대 중앙종회는 지난 10월25일 선출된 직능·비구니 대표 29명과 10월28일 선출된 교구 대표 50명 등 79명으로 구성된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종비생 은혜 보답

석림회 11기 신라스님
東大병원에 거액 기부

종비생으로 학교 다닌 은혜를 보답한다며 한 스님이 동국대 병원에 거액을 시주했다. 스님이 기부한 돈은 사찰 불사를 위해 모은 불사금이었다. 서울 은평구 약수사 주지 신라스님(사진 왼쪽·석림회 11기)은 지난 10월25일 1억1500만원을 한방병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조계종 종단 장학생으로 4년 동안 동국대를 다녔다. 받은 것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사찰 불사를 위해 준비한 불사금을 한방의 과학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 일산 동국대한방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佛敎新聞

“종단화합과 발전 위해 최선”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 1년 소회 밝혀

제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월3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법회 1주년이 되는 11월5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서민들에게 연탄과 쌀을 나눠주는 ‘자비 나눔 행사’를 갖는다. 총무원 기획실에서 <취임 1주년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 외에 별도의 기념행사는 없다. ▶관련 기사 3면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번거롭게 하는 행사를 일체 준비하지 말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겨울을 앞두고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연탄 배달 행사만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 이후 33대 집행부의 발원(發願)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내세우고, 3대 중무기조로 스수행종풍 선양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 실현을 제시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11대 핵심과제와 25대 주요과제를 발표하면서 불교중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분주한 1년을 보냈다. 총무원장 스님은 특히 승가교육 제도개선과 한국불교의 세계화, 종단재정구조 합리화, 직할교구 주지 인사사고과제 도입, 승려개인명의 재산의 입적 후 종단 출연, 승려노후 복지 구제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지난 3월 중앙종회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의 건이 통과된 후 장명진스님의 반발 등 사회적 파장이 있었지만, 곧바로 행정력을 발동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화쟁위원회를 출범시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대한 의견을 도출했고, 총무원은 그 결과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자칫 종단 전체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1월 평양 방문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국가를 방문해 민간외교사절의 역할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경색 국면을 화해 분위기로 조성하는 기초를 놓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평화와 극빈국가 어린이 교육사업 등에 대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사찰음식 시연 행사를 뉴욕에서 개최하고, 교민불자들을 격려하는 등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루는 단초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소통과 화합’의 중심

별도 기념행사 생략

‘서민위해 연탄 배달’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김황식 총리, 정몽준·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선 후 첫 행보로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방문, 위로한 것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노인복지시설 등 매달 1~2차례씩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일 중앙중무기관 및 유관기관 중무원 월례조회에서 “33대 집행부가 출범한 후 총무원장으로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공(功)과 실(失)이 있고,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취임 1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취임) 2년째에 들어가는 만큼 종단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예장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중무기관 월례조회에서 “33대 집행부가 출범한 후 총무원장으로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취임 1년을 맞는 소회를 밝히며 이어 “(취임) 2년째에 들어가는 만큼 종단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알립니다

불교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리셉션

귀의 삼보하옵고,

1960년 1월1일 창간된 불교신문이 올해로 창간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불교신문은 그동안 사부대중의 관심에 힘입어 오늘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창간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독자 여러분께서도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54(2010)년 11월9일(화) 오후6시

■ 장 소 : 서울 AW 컨벤션센터(구 하림각) 그랜드 볼룸

■ 문 의 : 불교신문(02-730-4488), 하림각(02-396-7000)

불교신문사

“불교신문 50년 정법 위한 50년”

9일, 본지 창간 50주년 리셉션 개최

현대 한국불교 역사와 동고동락하며 반세기를 살아온 한국불교 대표 언론 ‘불교신문’이 올해로 창간 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리셉션을 연다. 오는 9일 오후6시 서울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리셉션은 불교신문의 창간 정신을 재확인하고 과거 업적을 조명하며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리셉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종단 원로와 중앙중무기관 소임자, 각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주요 인사와 불교계 주요단체 대표, 장·관계 대표, 불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리셉션은 중앙종회의원

종민스님의 사회로, 불교신문 사장 선묵스님의 인사말,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기념사, 이명박 대통령의 축하(대독) 등으로 이어지며 축하 떡자르기와 저녁 만찬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불교신문은 창간 5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사와 행적을 정리한 <불교신문 50년사(史)>를 발행한다. 340여 페이지에 이르는 <불교신문 50년사>에는 신문 변천 역사와 한국불교 현대사와의 관계, 신문이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불교신문은 ‘한 장의 불교신문,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모토로 지난 1960년 1월1일 ‘대한불교’라는 제호로 창간된 국내 최초 불교언론이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社 告

미얀마 가정에 ‘희망의 불빛’을 전합시다

사단법인 더프라이미스와 불교신문사는 전기가 없는 낙후된 농촌 지역인 미얀마 오모, 레바도 마을에 친환경 태양열 전등 지원사업 ‘희망의 불빛’ 모금캠페인을 펼칩니다. ‘희망의 불빛’은 태양열 전등 설치부터 1년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3만원 이면 미얀마 가정에 희망의 불빛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모아 2010년 12월, 350가구에 태양열 전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아이들이 해가 저물어도 공부할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 최 : 불교신문사, 사단법인 더프라이미스
- 주 관 : 사단법인 더프라이미스
- 기 간 : 2010년 11월30일까지
- 목 표 액 : 1500만원
- 후원방법 : 3만원 - 1가정 태양열 전등 1개 후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01-04-232400 (예금주 : 사단법인 더프라이미스)
- 문 의 : 더프라이미스 (02)735-3119(기부상담 문의) 불교신문사 (02)730-4488

국제포교사회 정기총회

회장 선거·전문화 연수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는 오는 13일 오후1시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2010년 정기총회 및 제7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국제포교사 품수를 받고 만 2년이 경과되거나 만 1년 이상 임원을 역임한자로 유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회장 입후

보 자격이 주어진다. 입후보자는 등록 신청서, 이력서, 유권자 추천 10명 이상, 등록접수비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무국으로 등록하면 되고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거친 후 13일 선출된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제6교구본사 마곡사와 공주 전통불교문화원 일원에서 국제포교사 전문화연수를 실시한다. 오는 10일까지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염태규 기자

근대 한국불교 최고의 명저 『朝鮮佛敎通史』 최초 완역본

『역주 조선불교통사』 출간 경찬법회

- 1 상평 불화시처佛化時處(→ 삼국고려)
- 2 상평 불화시처佛化時處(→ 조선)
- 3 중평 삼보원류三寶源流
- 4 하평 이백품제二百品題(→)
- 5 하평 이백품제二百品題(二)
- 6 하평 이백품제二百品題(三)
- 7 원문개정판 朝鮮佛敎通史 (교감본)
- 8 총목차·색인집



이능화 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역주
2010년 9월 10일 발행
4×6배판
1~7권 고급 양장, 8권 반양장
정가 400,000원
ISBN 978-89-7801-286-7(set)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_ 불기 2554년(2010년) 11월 15일(월) 오후 4시 | 장 소_ 조계사 대웅전

귀의삼보하옵고,

근대 한국불교 최고의 명저로 평가받는 『朝鮮佛敎通史』(이능화 편찬, 1918년 신문관 발행)를 92년 만에 우리말로 완역하여 전집으로 간행하였습니다.

종립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역주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번역에 착수한 지 8년 만에 해제와 주석 그리고 교감校勘한 원문을 곁들여 동국대학교출판부에서 『역주 조선불교통사』 전집(전8권)을 완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함께 『역주 조선불교통사』 전집의 출간을 축하하고 널리 알리는 경찬법회를 열고자 하오니 부디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련 합장

주 최 _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주 관 _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